

제二十二장 락원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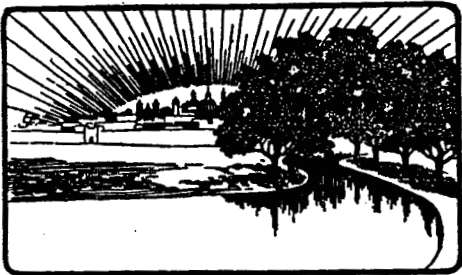
생명강과 생명나무

「저가 내게 생명수의 강으로써 보이니 수정가리 많은대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거리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실과 열두종류를 매치대 달마다 그 실과가 매치고 그 나무 입사귀는 만국으로 소성하게 하는지라 다시는 저주함이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잇으리니 그 종들이 주를 섬기며 그 실과를 불러인데 주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잇으리라 다시 밤이 업겟고 등불과 해비출 쓸일이 없스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게 비최심이라 저희가 세세에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은 이미 전장에서 신천신지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화려찬란한 광경을 세세히 설명하였거니와 본장에는 아직도 다 말하지 못한 새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귀한 사실을 말하고 또한 밋지안자를 경고하는 동시에 누구든지 그 영광스러운 성으로 드리오라는 부름으로써 본서의 결론을 지었다.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거리한 가운데로 지나는것을 보았는바 이 강이 온 세계를 돌리 모든 지면을 윤택케 하였다. 『다윗』은 이

에 대하여 기록하기를「한 하수가 있어 나누어 흐르는것이 하나님의 성으로 즐겁게 하니 이 성은 곳 지금히 높으신자의 장막의 성소로다」(시四十六〇四) 하였으며 또 기록하기를「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대개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잇사오니 주의 비체서 우리가 비출 보겠나이다」(시卅六〇八、九) 하였다. 생명강 좌우에



생 명 강 과 생 명 나무

는 생명나무가 있어 실과 열두종류를 매치대 달마다 가지아니한 종류를 매치며 생명나무의 입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약이 된다. 혹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거기에다 병이 잇것는가 하겠지마는 병이 잇으므로 생명나무 입사귀가 그것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는것보다 이 입사귀가 병의 원인을 제하여 버리는 예방약이 된다고 생각하는것이 합당치안은가 한다. 곳 생명나무의 실과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요소를 가졌고 그 입사귀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요소를 가진것이라고 생각할것이다. 그런데 그러케 우리 인생에게 진절찬 생명나무는 강 좌우 언덕에 뿌리를 박고 무성한 가지로 강을 덮허 마치 『돈넛』과 가른 형상을 이루었다. 대개 생명나무는 그

형상이 보통 나무와 가지아니하고 뿌리는 비록 여럿이나 그 가지는 서로 련하여 하나를 이루었으니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여럿이면서 실상은 한 나무이다. 한 선지자는 특시가운데 이러한 광경을 보았다. 「성안에 잇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보

일을 당하여 모든 혈기있는 자가 이르러 내 압해 경배하리라」(사六六〇十二、十三、廿二、廿三)하였다. 과연 그때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무한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성신과 신부의 말씀이 오라하시는데도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곳 선지자의 령혼의 하 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사 그 종들에게 정령 속히 될일을 보이셨도다 불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어 러것을 보고 드른자는 나『요한』이니 내가 보고 드를때에 이일을 내게 보이든 천 사의 발압해 업드려 경배하니 저가 나다려 말하기를 그리 하지말라 내가 나와 너 의 형제 여러 선지자와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가티 된 종이니 오직 하 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한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새가 까우니라 불의한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자 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자는 그대로 거룩할지라 불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상말이 있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갎해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오 시작과 스리라 그 옷을 씻은자는 복이 있으리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 세가 있고 또 문으로 성에 드러가갓고 성막계는 개와 복술과 행음한자와 살인한 자와 우상에게 절하는자와 및 거짓말을 조하하여 지어내는 모든자가 있으리라 나

예수는 여러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 여러일로 내게 증거하게 하였 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곳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신과 신 부의 말씀이 오라 하시는데도다 뜻는자도 오라할것이오 목마른자도 울것이오 또 원하 는자는 갎입시 생명수를 마시라 내가 이 책에 예언한 말씀을 뜻는자에게 증거하 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한 여러 재앙으로 그에게 더하실터이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한 말씀에서 얼마를 제하면 하 나님이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성에 참여함을 제하시리라 이 여러 것을 증거하신이가 가르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성도에게 잇을지어다 아멘」

「요한」은 목시 가운데 여러가지 사건을 다 보았고 또한 신천지의 거룩한 성과 그 찬 란한 광경을 다 보았다. 『요한』은 이것을 볼때에 한갓 환상적(幻想的)으로만 본것 이 아니니 목시를 가르치는 사자가 그에게 니르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중 거하였다. 물론 이 목시록의 사실이 진실된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앞서 만히 연구하였 고 목시록 그 자체가 여러가지 사건을 설명할적마다 참되다고 밝히 증거한바이다. 그 러나 여기에 한번 더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을 가하여 본서의 내용이 확실 무의한 것을 일층 굳게 증거한것이다. 그리고 「정녕 속히 될 일을 보이셨으니……이 책에 예 언한 말씀을 지키는자가 복이 있으리라」하였다. 『요한』은 본서를 기록할때에 그 허 두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자와 뜻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것을 지키는 자들이 부

이 잇으리니 새가 가싸움이라」하였는데 이제 본서를 마침에 당하여서도 그 가튼 말을 거듭 말함으로 본서의 중대성을 힘있게 표시하였다. 특별히 이 묵시록은 말세에 처한 우리 믿는자에게는 더할수 없는 보배가 되나니 「새가 가싸움이라」하는 말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보아 본서가 말세 신자에게 관한 귀별임을 확신할것이다. 더욱 이 묵시록의 결론을 짓는 본장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세번이나 거듭하여 말세에 처한 믿는자들이 본서의 예언을 얼마나 신중히 생각하고 지켜야 할것을 경고하였다.

다니엘서는 말세까지 인봉하여 두라고 명령하였으나 본서는 새가 가싸웠으니 인봉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 예언은 『요한』 당시로부터 성취하기를 시작하여 오늘날까지에 이르렀는데 그 동안에 많은 참된 신자들이 이 예언을 연구함으로 무한한 성신의 능력을 잇고 마음에 위안을 바닷을것이다. 오늘날 소위 고등 비평가들은 이 묵시록은 별로 연구할 가치가 업는 공상적 글이라하여 배척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보며 죄의 비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보며 죄의 비참한 결과와 의로운자의 최후의 승리를 배우는것이다. 이 글은 과연 인봉할 글이 아니오 공개하여 연구하여야 할 글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이 글을 밋고 바다드리는지 혹은 거절하든지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택하여야 할것이다. 오늘날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 죄를 사유하시기를 간구하시거니와 장차 새가 이르르면 그 일을 마치고 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성소문을 다드시고 나오시면서

선언하시기를 「불의한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한자는 그대로 거룩할지라」 할것이다. 그 때에는 모든것이 이미 결정되었나니 세상에 닐곱 마지막 재앙이 나릴것이오 예수께서 곳 구름라고 이 세상에 립하시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상과 벌을 주실것이다. 그런즉 오늘날 우리는 그 선언이 나리기전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독실히 믿는자가 되어야 할것이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이 (알파는 『헬라』자모의 첫째자 오메가는 마지막자) 가 가르사대 「그 옷을 씻은자가 복이 잇으리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가 잇고 또 문으로 성에 들어가갓다」고 하였으니 그 옷을 씻은자가 누구뇨 곳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속한자니 미등으로 계명의 모든 요구를 이른자이다. 이 성경말씀은 『헬라』성경에 의지하면 계명을 지키는자가 복이 잇으리라」고 번역함이 가장 적당하다. 예수께서 일찍이 가르치시기를 「내가 영생에 드러가랴면 계명들을 지키라」(마 十九〇十七)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것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는것이라」 하였으니 먼저 죄사함을 받고 다음에 계명을 지키어 행하는자는 그 옷을 씻은자가 될것이다. 그런데 『요한』은 새 『예루살렘』성 바깥 『사단』의 거느린 악한 무리가 잇는것을 보았나니 저희는 곳 거룩한 성을 치라는자들 장차 들재 사망에 드러갈자들이다. 곳 더 밋고 사술을 행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에게 절하는자와 밋 거짓말을 조하하여 지어내는 모든자들이다.

본서가 그리스도의 묵시인것은 一장 허두에도 기재된바이다. 그러나여기에 다시 예수께서

여러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어 증거하게 하신것임을 천히 말씀하시고 또 당신은 『다윗』의 뿌리요 가지며 광명한 새벽별임을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조상을 만드셨으니 그가 『다윗』의 뿌리가 되며 그가 『다윗』의 후예로 육신을 쓰시고 탄생하셨으니 그 가지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보좌의 광명한 새벽별 곳 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터이다.

성신께서 오래동안 우리를 권면하여 오라하시고 신부도 또한 오라하시니 이 신부는 누구를 가리칭인가? 이미 연구한대로 신부는 곳 새 『예루살렘』성이니 우리가 그 거룩한 성의 영광과 화려한것을 보고 거기에 드리가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수 있다는 보증 잇는다면 어찌케 그 성의 오라는 부름을 거절할수 잇겠는가? 금강석과 각색 보석으로 성을 싸코 각색 진주로 문을 세우고 황금으로 길을 깔은 그 성은 과연 우리 리를 오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 성을 생각할때에 나는 원치안노라고 거절할수 업는것이다. 성신과 신부의 말을 듣는자는 울것이오 사모하는자도 울것이오 원하는자는 갑업시 생명수를 마실것이다. 『이사야』선지자도 이와가튼 사명을 부르지전나니 「무릇 목마른자들이 너희는 물에 나을것이오 돈업는자도 와서 사먹으대 돈업지 와서 갑슬내지 말고 술과 젖을 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드르면 아름다운것을 먹으리니 살진것으로 너희 마음을 기쁘게 하리라」(사五五〇一, 二) 하엿다.

이 묵시록의 예언중에는 이상한 기록이 많호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의미한듯 한것도 잇고 불필요한듯 한것도 잇으나 이는 오직 거룩한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대로 더하든지 덜하든지 할수업는것이다. 누구든지 이 말씀의 뜻을 더하여 가르치는자는 하나 남제서 이미 기록된 마지막 날함재앙으로 그에게 더하실터이오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한 말씀에서 얼마를 제하는자는 새 『예루살렘』성에 드러갈 권리를 그에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묵시록 연구하는자는 사람의 뜻을 온전히 버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히 연구하되 오직 성경으로 대조하여 해석할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지시와 교훈을 온전히 지킬것이다.

이 묵시록의 모든 사실을 증거하신이는 예수시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엿다. 이제 이 귀한 허락을 듣는 우리 일반은 『요한』과 한가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하고 성심으로 간구할것이다.

오오! 주 예수의 재림하실 기약은 각각으로 림박하여 온다.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하기를 남은때가 만치안라고 한다. 예수께서 조사심판을 마치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버스시고 만왕의 왕의 위임을 가초시고 악마의 세력에 고통하는 성도들을 다리시리 이 세상으로 오실날이 심히 림박하엿다. 그가 림하시는 날에 이 세상은 온갖 거짓된것과 온갖 불의한것과 온갖 더러운것이 다 하여지고 모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것으로 충만될것이니 어찌 우리의 고대하고 바랄바가 아닌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를 사모하며 그의 림하시는 날이 하로라도 일으기를 고대할것이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 [뜻] —

昭和八年一月二日 印刷
 昭和八年一月五日 發行

昭和八年一月二日 印刷
 昭和八年一月五日 發行

【定價金貳圓】



發行所

時兆社

著者

王大雅

京城東大門外清涼里

行者

吳璧

京城東大門外清涼里

刷者

吉利瑞

京城東大門外清涼里

刷所

時兆社印刷部

京城東大門外清涼里

京城東大門外清涼里

新書口座京城五七四三番
 電話宛代門一七二一番